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8월 현장 시범운영 돌입

시설·전시·행사·교통·안전 등 분야별 운영체계 점검

서영학 시장 “개막 전 준비 마무리…완성도 높일 것”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9월 5일 개막을 앞두고 실제 운영환경에서 박람회 전 분야를 점검하는 현장 중심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20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시설·전시·행사·교통·안전 등 분야별 운영체계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관람객 불편과 예상문제를 개막 전에 개선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단계별 점검을 진행한다.

조직위는 지난 14일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18일 행사장 모니터링단 운영, 21일 주행사장 통합 시운전, 29일 시민 초청 프리뷰데이 순으로 점검 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지난 18일에는 전문가와 시민, 사회단체, 장애인, 외국인 등 33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모니터링단은 실제 관람객의 입장에서

행사장 이동 편의성과 안내체계, 편의시설, 콘텐츠 접근성 등을 살폈으며 조직위는 제시된 의견을 시설·서비스 개선과 현장근무자 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주행사장 시설과 운영시스템을 실제 개장시간에 맞춰 가동하는 통합 시운전을 한다.

교통·주차와 게이트, 전시, 공연·행사, 안전·의료 등 분야별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관람객 집중과 응급환자 발생, 시설 장애 등 비상상황을 가정한 대응 시뮬레이션도 진행한다.

오는 29일에는 시민 관람객 2만여명을 초청해 실제 행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프리뷰데이를 개최한다.

개장 준비부터 관람객 입장과 이동, 체류, 퇴장까지 전 과정을 운영하며 혼잡과 대기시간, 시설·서비스 이용 불편, 현장 인력 배치, 상황보고체계 등을 최종 점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전문가와 시민, 사회단체, 장애인,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 330여명이 참여하는 주행사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 사진제공=2026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한다.

이날 KBS가 주관하는 전국노래자랑 본선 녹화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시범운영 단계마다 확인된 문제점과 관람객 의견을 분야별로 기록·관

리하고 담당 부서와 대행사를 통해 개막 전까지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8월 한 달간 반복적인 현장 점검과 보완을 통해 섬박람회 운영의 완성도를 최대한 높일 것”이라며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더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도록 개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9월 5일

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여수 들산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광양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급감

3년 만에 780억→283억…63.7% 줄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경기 침체로 취득세(부동산) 징수액이 3년 만에 63.7%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 취득세는 광양시가 위임받아 징수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목

으로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금액, 취득부동산의 유형·가격대, 감면 세율 제도 등에 따라 부과·징수된다.

이같은 취득세는 지난 2022년 780억원까지 징수했지만 3년이 지난 2025년 283억원으로 63.7%나 크게 감소했다.

이는 토지거래나 아파트 신축이 감소하면서 취득 건수나 부동산 거래금액이 모두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취득 건수도 2022년 1만1182건이었지만 2025년에는 8374건으로 2808건이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 기준 취득세는 광양읍 용강리 일원 아파트 분양에 힘입어 취득세를 230억원(5966건)까지 징수했지만 하반기에는 아파트 분양계획

이 없어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아파트나 토지거래가 주춤하면서 취득세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아파트 분양계획이 없고 토지 매매거래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당분간 취득세 징수액은 저조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시세(취득세 포함)로 재산세,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총 2923억원을 징수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특별세션’을 찾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구례군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곡성 시니어 굿즈, 기차마을 ‘장미의 집’ 입점



곡성 시니어 굿즈 매대.

군, 팝업스토어 시범운영서 로컬 관광 콘텐츠로 육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시범 운영을 통해 선보인 곡성 ‘시니어 굿즈’를 곡성기차마을 내 곡성샵 ‘장미의 집’에서 상시 판매한다.

이번 입점을 계기로 일시적인 판매에서 벗어나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니어 굿즈를 만나고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곡성 시니어 굿즈는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삶과 경험, 이야기를 곡성만의 특색 있는 상품으로 풀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한 기념품 제작을 넘어 지역의 이야기와 어르신들의 감성을 상품에 담아 곡성을 기억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앞서 시니어 굿즈는 연초 곡성을 중앙로 공실상가와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섬진강기차마을에서 두 차례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선보였다. 방문객들이 직접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상품별 선호도와 관심도를 확인했으며, 곡성의 지역 이야기와 어르신들의 감성을 담은 굿즈가 관광 기념품으로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장미의 집’ 상시 판매는 이러한 시범 운영을 한 단계 확장한 것으로, 관광

객이 많이 찾는 기차마을 내 기존 굿즈 판매공간을 활용해 시니어 굿즈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별도의 판매공간을 새롭게 마련하기보다 기존 관광 시설과 연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판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상시 판매를 통해 고객반응과 판매 자료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성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시니어 굿즈가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곡성 어르신들의 삶과 지역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지역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나갈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시니어 굿즈에는 곡성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굿즈를 통해 곡성만의 정서와 이야기를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구례, 섬진강유역환경청 유치 ‘총력’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서 필요성·당위성 알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국제학술특별세션’을 찾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과 구례군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거버넌스 혁신: 인간과 AI, 그리고 정책의 정당성: 세 정부 공약 1년의 과정과 성과’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정책학계 교수와 연구자, 공공기관과 행정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구례군은 행사장을 찾은 정책·행정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배부하며, 5대강 중 유일하게 독립된 전담 환경 행정기관이 없는 섬진강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과 섬진강유역환경청을 구례에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알렸다.

특히 현재 섬진강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에서 함께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와 반복되는 홍수·가뭄 등 물 재난에 대응하고 수질·수량·하천·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섬진강 수계에 독립된 독립적인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구례는 섬진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산과 섬진강이 만나는 생태적 상징성과 현장성을 갖춘 지역이라는 점도 적극 홍보했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섬진강은 전북·전남·경남을 아우르는 독립적인 수계임에도 별도의 전담 환경행정기관이 없는 실정이다”며 “섬진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상·하류를 균형있게 관리할 수 있는 최적지가 구례라는 점을 적극 알려 섬진강유역환경청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9942@

고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홍보

답례품 특징·활용법 등 소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흥의 다양한 답례품과 이벤트를 소개하며 기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인스타그램 ‘고흥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쌀, 유자, 한우, 수산물 등 고흥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사진과 영상으로 선보이고 있다.

상품의 특징과 활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해 기부자의 선택을 돕는 한편, 지역 농수특산물의 매력도 함께 알리고 있다.

아울러 월별 이벤트와 세액공제 혜택, 기부 방법, 지정기부사업 등 기부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도 꾸준히 제공하며 온라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2일까지 ‘더불어이벤트’를 진행한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고흥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기부자 전원에게 별도의 추첨 없이 네이버페이 1만원을 증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지역을 응원하는 기부의 보람은 물론 세액공제, 답례품, 이벤트 당첨 기회까지 더해져 ‘1석 4조’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981177@gwangnam.co.kr

내달부터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5% 추가 혜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결제금액의 5%를 추가 환급(캐시백)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기념해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보성군은 통합특별특별시 1억5000만원을 투입하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카드형 보성사랑상품권 이용자가 판매자점에서 결제하면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혜택과 별도로 결제금액의 5%가 추가 환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10만원 결제 시 5000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적립된 환급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역상품권 차(Chak)’에서 환급금 사용 설정(캐시백 ON/OFF) 기능을 ‘사용(ON)’으로 설정하면 이후 결제 시 우선 차감된다.

군은 이번 지원으로 약 21억원 규모의 추가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상품권 사용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해 전통시장과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QR 결제 가맹점을 확대해 군민과 보성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

장흥, 31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 지급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오는 31일부터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장흥군에 주

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다. 지원금은 장흥군 내 장흥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발행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31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는 신청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한다. 신청 첫 주인 31일부터 9월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해 군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gwangnam.co.kr